

인권 평등의 원칙을 실천하는 가정

현대에는 모든 것이 생산과 소비라는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 무엇이든지 빨리, 그리고 많이 생산되는 것이라면 보람있고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 풍토 속에서 사람의 사람다움도 자꾸만 감소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그 본래의 모습대로 따진다면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대에는 빨리 그리고 많이 생산되는 것과 맞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인간의 평등성(Equality)이 바로 교환성(Exchangeability)으로 혼동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인간의 존엄성을 물량적인 저울로 재기도 하고 인격성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직업적 기능이나 간판으로 평가를 하는 수가 많다. 경제 건설을 하는 일이 우리 나라에서는 아주 시급한 일 이기는 하지만, 그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이 모든 가치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단순히 정부의 시책에만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자세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남의 인권이나 존엄성을 무시하고서라도 자신의 출세를 높이 평가하는 폐습을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 전통 속에 전해 내려온 폐습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통 중에 가장 뿌리 깊은 것이 가족주의이다. 모든 것을 가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저울질한다. 부부간의 윤리, 부모 자식간의

우리는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굳은 유대 의식으로 가득 차있다. 서구의 문명에 비해 본다면 사회 공동체 보다는 가족 공동체 위주로 사는 것이 한국 문화의 기본 특색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주의라는 미덕 속에도 우리가 고쳐야 할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족 유대 의식이 너무나 공서적(共棲的)이라는 것이다. 공서적이라 함은 인격적인 개념이 없는 집단 생활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가족 윤리는 유교적인 가치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공동 의식이 희박하다. 거기에는 권위에 대한 순종, 자식으로서의 의무, 부모로서 지켜야 할 일들만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서 서로 말을 주고 받는 일이 딱 드물다.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가족제도 속에서 흔히 공서적인 공동체 의식 밖에 생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의 것>, 자식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식에 대한 애절한 감정 귀여운 육정도 결국 <자기의 것>에 대한 집착과 서로 통하는 감정이라고 할 것이다.

내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으로서의 아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생각의 부족한 것이 그저 함께 사는 가족 개념의 특징이다. 한 가족이 함께 생활고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여 어린 자식들의 생명까지 다 빼앗는 기사를 가끔 본다. 이것은 공서적인 가족 개념에 집착이 된 부모의 심정일 것이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을 누가 돌볼까? 차라리 부모 없는 자식으로 서 고생을 시키기 보다, 함께 죽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하는 마음뿐 그들의 하나의 독립된 인권 평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원칙

을 실천 못하는 데서 일가 자살 기도란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내나 자식을 나의 물건으로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다. 내가 없으면 이 물건의 어찌되나 하는 집착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없는 그들은 아무런 생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전체하에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생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권 평등을 잊어버린 공서적 가족 관념은 큰 죄악이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의 유대는 결코 자연적인 생리적 결합뿐만 아니다. 이 인간 관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결합 관계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인 결합 관계에서는 자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인격자로서 스스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닌 존재로 나와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그 자식의 성장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자아를 찾아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없더라도 그대는(아내든, 자식이든 막론하고) 이 땅 위에 남아서 살 권리가 있고, 하나님이 그대를 끝까지 돌봐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인격적인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성립된다.

가족은 하나의 공서적인 집단이 될 수 있지만, 가정은 이러한 공서적인 유대가 인격적인 공동체로 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는 말도 이러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격적인 가정 안에서도 자식은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존재의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도 이를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단순히 내가 부

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대해서 무엇이든지 강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요즘과 같이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생활 양식이 변천하는 시기에 우리의 가정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겨졌다. 종래의 가족 윤리가 한편으로는 무너지고 가고 부모와 자식간, 그리고 부부간의 유대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 집을 떠나는 아이들, 그리고 부쩍 늘어나는 부부의 이혼 사건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각자가 다 자기의 인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것인가? 그것이 전부일까?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형식적으로 함께 사는, 마음이 서로 통하지 않는 가족 생활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수신제가라고 해서 가정이 무턱대고 권위주의적으로 아내나 자식을 눌러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수고하는 다른 식구들, 내 회사나, 공장이나, 목장에 서, 상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평등도 나와 내 식구의 인권 평등과 똑 같이 인정하고 그 원칙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우리 사회의 인권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의 위신을 지키고 정당한 권위를 가지면서도 젊은 이에겐 양보하고, 그러면서도 질서는 질서대로 유지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훌륭한 인격자이다. 은혜롭게 살아간다는 생각은 자식이나 젊은 이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형상을 보고, 자기와 맞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와 아량으로 평화롭게 생활의 여유를 보여주는 생활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인권 평등의 원칙은 질서를 인식하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